



김경한 제11기 광주시 청년위원회 위원장

“보여주기 아닌 ‘일하는 청년위원회’ 만들겠다”

현실의 목소리 반영 부족...청년정책 체감도 낮아 일자리 넘어 기업 성장·청년 생태계 구축이 해법



“청년정책이 많아도 체감이 낮다는 지적. 결국 ‘현실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제11기 광주시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경한 위원장은 ‘실행력 있는 위원회’를 가장 먼저 강조했다. 10년차 문화기획자이자 활동가로서 현장을 누벼온 그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의 입장을 대표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그리는 청년위원회는 기존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그는 “모든 청년이 위원회 활동을 알고, 정책을 통해 실제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정책 체감도를 끌어올리는 연결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청년정책 체감도가 낮은 원인에 대해서는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광주시가 청년정책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청년들은 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이유로 현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창구 부족과 정량적 성과 중심의 정책 설계를 꼽았다. 그는 “정책이 필요한 청년에게 정확히 닿지 못하는 미스매치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청년들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생계’를 지목했다. 특히 일자리 문제는 여전히 핵심 과제다.

김 위원장은 “현재 다양한 일자리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대부분 단기·일회성

에 그친다”며 “이제는 사업 수를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내 기업 유치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에서 성장하고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과의 상생 구조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의 실질적 정책 영향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청년위원회는 경제·일자리, 문화·삶의 질, 참여·교육 등 4개 분야로 운영되며, 각 분야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포럼을 통해 현장 의견을 발굴하고, 정책 제안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에 익숙하지 않은 청년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배움과 토론을 거쳐 제안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일기 내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표로는

“일하는 청년위원회” 구축을 꼽았다.

그는 “단순히 위촉장이나 회의비를 위한 거버넌스가 아니라,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타 지역과의 정책 교류를 정례화하고, 광주와 대구 간 ‘달빛동맹’처럼 청년정책 협력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핵심 과제는 ‘청년 문화예술인 자립 생태계 구축’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문화예술 지원사업은 단기·일회성에 그치면서 오히려 생태계를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광주에 문화예술 예산이 많은 도시임에도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이 직접 기획하는 대표 행사인 ‘광주청년주간’ 예산이 최근 5년간 75% 삭감된 사례를 들며 “청년 목소리를 담아낼 거버넌스 부재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광주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며 느낀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기회의 공정성’을 꼽았다.

그는 “청년기업이 공공사업에 도전하려 해도 특정 업체에 이미 돌아간다는 소문이 도는 현실은 큰 좌절감을 준다”며 “새로운 기회를 통해 성장해야 할 청년들이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단체와 기업이 공공사업을 독점하는 관행에 대해 사회적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이 지역에 남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청년 인프라’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단순히 일자리나 문화시설을 넘어, 함께 도전하고 협업할 수 있는 청년 생태계가 중요하다”며 “청년 리더와 크리에이터들이 상시 활동하며 기회와 정보를 공유하는 환경이 조성될 때 지역 정부의 지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첫돌 외롭지 않게”...광주 청년들, 뜻깊은 생일파티 눈길

자영업 모임 ‘봉선화 봉사단’ 아기 첫 생일 축하 자리 마련 “지역 도움 손길 줄어 아쉬워”



광주의 젊은 자영업자 모임인 ‘봉선화 봉사단’이 돌을 맞은 아기의 첫 생일을 함께 축하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광주의 젊은 자영업자 모임인 ‘봉선화 봉사단’이 돌을 맞은 아기의 첫 생일을 함께 축하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

337 봉선화 봉사단은 지난 24일 광주 대한사회복지회 편한집에서 돌잔치를 열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한 아기의 첫돌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봉사단 회원들과 후원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돌잔치를 진행하고 식사를 함께 나누며 아기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했다. 행사는 윤지현 MC의 진행으로 치러졌다.

대한사회복지회 편한집은 6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에게 숙식과 전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건강한 양육과 자립을 지원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다.

‘봉사를 선도하는 화목한 사람들’의 줄임말인 봉선화 봉사단은 광주지역 청년 자영업자들로 구성된 봉사모임이다. 이들은 매달 한 차례씩 보육원과 요양원 등 도움이 필요한 시설을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4년째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돌잔치는 가족이나 지인을 따로 초청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봉사단은 단순한 행사 지원을 넘어 시설과 아이, 가정을 향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화진 봉선화 봉사단 대표는 “어린 미혼모가 홀로 아기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짐작하기 어렵지만, 이렇게 시설을 도울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돌을 맞은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봉선화는 4년째 작은 정성이지만 매달 도움이 필요한 곳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며 “이번 인연을 계기로 편한 집과도 꾸준히 함께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혜선 대한사회복지회 편한집 원장은 “시설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늘어 나면서 조금 큰 아이들이 있었는데, 몇 년 만에 돌을 맞은 아기의 생일을 많은 분이 축하해주고 정말 감사하다”며 “예전보다 도움이 필요한 손길이 줄어들면 만큼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광주 서구새마을회는 최근 배창숙 회장이 기탁한 특별 기부금 1500만원을 재원으로 한 ‘자체 공모사업’ 대면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서구새마을회, 자체 공모사업 대면심사 성료 배창숙 회장 특별기부금 활용...복지 증진 등 과제 수행

광주 서구새마을회는 최근 배창숙 회장이 기탁한 특별 기부금 1500만원을 재원으로 한 ‘자체 공모사업’ 대면 심사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서구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와 공익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직·공장새마을서구협의회, 새마을문고서구지부 등 4개 단체가 제안한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대면 심사에서는 각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지역 사회 기여도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심사 결과 최종 7개 팀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지역 복지 증진, 환경 정화, 독서 문화 확산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한 실천 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

배창숙 서구새마을회장은 “서구새마을회 4개 단체가 보여준 열정과 구체적인 실행 의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선정된 7개 팀의 활동이 서구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소중한 불씨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새마을회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 주도의 자율적인 봉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 현안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현장 중심의 새마을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5일 북구 매곡동 중외공원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찾아 불철 화재예방대책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광주소방, 불철 대형공사장 현장 안전 살피 화재위험 대비 임시소방시설·위험물 관리 지도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5일 북구 매곡동 중외공원 공동주택 공사현장을 찾아 불철 화재예방대책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건조한 불철 기후와 공사장 내 화재 위험요인 증가에 대비해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에서는 화재 취약 공정을 중심으로 공사장 화재예방 안전수칙 준수 여부,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상태, 위험물 취급 및 관리 실태, 비상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고영국 광주소방안전본부장은 현장 책임자와 면담을 통해 화재 예방의 중요성을 사전에 제고하고 현장 관계자의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에서는 화재 취약 공정을 중심으로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SK텔레콤 서부마케팅담당,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500만원 기부

광주경찰청과 협력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SK텔레콤 서부마케팅담당 지역 어르신들의 디지털 안전 강화를 위한 사회 공헌 활동에 나섰다.

SK텔레콤 서부마케팅담당은 25일 국내 최대 노인복지 시설인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5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및 디지털 안심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광주경찰청과 협력해 마련됐으며, 행사 당일 약 70여명의 어르신이 참여했다.

광주경찰청 보이스피싱 담당 경찰관과 SK텔레콤 고객경험 담당 매니저가 강사

로 참여했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례와 대응 방법, 스마트폰 보안 설정 등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중심적으로 다루졌다.

특히 실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한 설명을 통해 어르신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명복 SK텔레콤 서부마케팅담당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



SK텔레콤 서부마케팅담당은 지난 25일 국내 최대 노인복지 시설인 광주광역시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5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고 있다.

다”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 서부마케팅담당은 올해 빛고을노인건강타운, 광주경찰청과 각 별도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어르신 대상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및 디지털 안전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